

人
스토리
열두번째

고개 너머 인생을 걷다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천관도서관 人스토리

고개 너머의 인생일기

나의 이야기

— 신들봉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지역 사람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록이기도 하다. 남산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울고 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새 책으로 엮여 세상에 나왔다. 일상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소중하게 포장되어 책이 되었다. 우리 집의 작은 화분이 책에 실리는가 하면, 어린 시절의 빛바랜 가족사진이 현재의 이야기가 되어 다시금 생명을 얻기도 했다. 남에게 쉽게 터놓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웃고, 눈물을 짓고, 생각에 잠긴 흔적이 책으로 묶였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는 다만 지나간 것에 그치지 않는다. 봉사와 베품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서,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낳을 것이다.

아무리 힘들고 외롭다 할지라도 곁에 있는 이가 손잡아준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는 한 번의 시도로 끝나지 않고, 천 개의 손을 함께 잡는 작업이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천권도서관인스토리’ 시리즈를 통해 우리 모두의 위대한 시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차례

4 복지관에서 듣게 된 생생한 그날의 증언

12 나의 인생

20 땀과 눈물 배인 시절

28 아름다운 기억들

42 지난 날을 돌아보며

신들봉

1938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났다. 네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고, 얼마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부산으로 피난 가게 됐다.

이후 쪽 부산에서 살고 형부의 중매로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아들 세 명과 딸 하나를 두고 살았다.

식당 경영부터 새마을 운동까지 치열한 시대 속에서 억척스러운 삶을 살아왔다.

